

<2022년 2월 6일 주일말씀>

지상세계 천국과 지옥의 삶

[시대 성경]

- ① <개발하여 만들어 놓고 쓰는 것>과
<만들어 놓지 않고 쓰는 것>은
그 환경이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다.
- ② 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것>과
<만들지 않고 사는 것>은
그 기쁨과 삶이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니라.
- ③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이며,
- ④ <자기 것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그 기쁨도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니라.
- 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의 차이도 그러하니라.
- ⑥ <행한 자의 삶>은 ‘살아 있는 삶’이며,
<행하지 않은 자의 삶>은 ‘죽은 삶’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상세계 천국과 지옥의 삶〉입니다.
- 〈천국과 지옥〉 하면,
〈무형세계, 영계의 천국과 지옥〉을 먼저 생각합니다.
- 오늘은 〈영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육의 세계, 천국과 지옥 같은 삶과 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 첫 번째 말씀입니다.

- 〈영계〉에만 ‘천국’ 과 ‘지옥’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세계〉에도 ‘천국 같은 곳’ 이 있고,
‘지옥 같은 곳’ 이 있습니다.
- 〈좋은 환경〉에 가면 - ‘천국’ 같다고 하고,
〈고통〉과 〈피로움〉을 받으면 - ‘지옥’ 같다고 합니다.
- 〈지옥 같은 환경〉도
 좋게 만들면 - ‘천국’ 같이 되어 기쁨을 누리며 살고,
 만들지 않으면 - ‘지옥 같은 고생’ 을 하고,
 ‘괴로운 고통’ 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 〈월명동〉도 개발하여 만들기 전에는 ‘지옥 같은 환경’ 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사니,
 〈받는 고통〉도 ‘지옥의 괴로운 고통’ 같았습니다.

- 사람은 <환경>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른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아예 <지옥>으로 가면,
‘어떤 영’ 이든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천국>으로 가면,
‘어떤 영’ 이든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이 만들어 놓고 사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의 환경’ 을 받고, ‘그 기쁨’ 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구원역사’ 를 펴시면서,
<섭리사의 핵심지인 월명동>을 ‘천국’ 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 먼저는 <선생님>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시대말씀>을 주어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육신>으로 삼고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정신’ 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 그다음에 <선생님이 사는 월명동의 지옥 같은 환경>을
<시대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천국’ 같이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 환경>을 보면, 정말 ‘악막한 환경’ 입니다.

〈개발하는 과정의 환경〉을 봐도, ‘막막하고 충격적인 환경’입니다.

그때 선생님과 같이 일을 하던 자들은

“평생 개발해야 끝이 나려나?” 하고 한숨을 쉬면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젊음이 늙기까지 하니, 큰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할 일들은 남았습니다.

- 〈월명동을 다 개발해 놓은 환경〉을 보니, ‘천국’ 같았습니다.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중 모임도 하며,
‘천국’ 같이 쓰게 됐습니다.

- 이와 같이 〈환경〉을

- 〈하나님의 뜻과 구상〉대로 만들어 놓고 쓰면, ‘천국’입니다.

- 만들지 않고 쓰든지,

-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쓰면, ‘지옥’입니다.

- 〈하나님의 뜻과 구상〉대로 만들어 놓고 써야,

〈환경의 천국〉을 만들고, 〈지상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이 〈깜깜한 흑암과 칠흑 같은 우주 세계〉를
만들지 않고 그냥 두셨을 때는 ‘지옥’ 같았습니다.

우주 안에 〈우주의 만물들〉과 〈지구〉를 창조해 만들어 놓으니,
‘천국’ 같이 됐습니다.

- 하나님이 <환경>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 섭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각자 <개발되지 않은 월명동 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하나님의 뜻과 구상>대로 행하면서
 <환경의 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모두 고생하며 개발해서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주와 일체 되어 <시대의 뜻>을 펴는 <시대 신부>가 되었으니,
 <휴거의 삶 :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같이 살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말씀입니다.

- <천국 같은 배경과 환경>을 만들었으면,
 <자기>를 ‘천국’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 섭리인들은 <하나님의 궁전 월명동>을 만들듯이,

<자기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신앙으로 ‘천국’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 <마음>은 깨끗하게 하고,

- ▶ <믿음>은 ‘월명동에 쌓은 돌’ 같이 굳건하게 하고,
- ▶ <사랑>은 ‘월명동의 돌’ 같이 튼튼하게 하여 무너지지 말고,
‘월명동의 소나무’ 같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 <환경>도, <사람>도 ‘천국’ 같이 갖추고 만들어서
‘삼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지상 천국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환경>은 ‘천국’ 같이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천국’ 같이 만들지 못하고 삽니다.
- <환경>도 ‘하나님의 뜻과 구상’ 대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몸>도, <마음>도 ‘시대말씀’을 듣고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 하나님의 지상 천국>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온전한 천국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 예수님은 <천국>이 ‘땅’에 왔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니, “나를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 <구약>은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만들 자, 메시아 예수님>이 왔어도,

무지로 배척하고 불신하여 ‘천국’을 맞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6000년이 되도록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맞고 행하지 않는다면,
<구시대>에서 ‘이상세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통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니,

저마다 <황금천국의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궁>을 지어 드리고,

<삼위>와 ‘천국의 환경’을 쓰면서
자기도 <황금천국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깨닫고,
삼위를 사랑하며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 ▶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도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환경 만들기>와 <자기 만들기>의 책임을 다하면,
<지상의 황금천국>을 만들고, <삼위일체의 신부>가 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 <자기 것으로 사거나, 만든 자>도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같은 기쁨’ 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뜻대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도
‘천국’ 같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 <이 모든 것>을 행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 <월명동 땅>을 <섭리사의 것>이 되게 하는데도
10년, 15년이 걸렸고, 어떤 땅은 25년 만에 사기도 했습니다.

<남의 것>이었을 때는 ‘각종 괴로움과 고통’ 을 당하면서,
‘말’ 을 들어가면서 아쉽게 사용했습니다.

- <자기 몸과 마음의 땅> 역시, 섭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것’ , ‘흑암 주관권의 것’ 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명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 <시대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자신의 것’ 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관권>에서 가지고 사니, ‘사탄’ 도 ‘악’ 도 다스리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에게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 시대를 따라
<환경>을 <황금천국 환경>으로 만들고,
<자기>를 <황금천국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황금천국 신부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 천국같이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을 관리하지 않고 무너뜨리면,
다시 환경 지옥이 됩니다.

절대로 온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신앙도 만들어서 황금천국같이 됐으니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다시 자기 지옥이 됩니다.

다시 일으키려면, 전보다 10배나 더 힘듭니다.

-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늘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고 도우시니,
매일 기도하며 사탄과 악한 자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밤낮으로 지켜야 도적을 맞지 않습니다.

깨어 자기를 지키고, 만들어 놓은 천국의 환경도 지키라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 지난날 자기가 환경 천국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고,
몸부림치고 행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구원하여 천국 인생,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행하셨는지 생각해야,

현재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주신 환경도 지켜 살게 됩니다.

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 지난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켜 왔기 때문에 자기도 환경도 천국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담대히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기도, 환경도 천국같이 만들기 위해
각종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행해 온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와서 기적으로 된 것들이니,
뺏기지 말고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를 잊으면, 현재에 받은 귀한 가치를 잊게 됩니다. 아멘.